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 출범

전북대·전주대·전주교대·예수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 등 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 위촉

전주시의 주요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대학 총학생회 임원단이 꾸려졌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예수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들을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ESG 공동실천의 일환으로 대학생 탄소중립 실천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논의했으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시설 견학도 했다.

시는 대학생 정책협력단과 각종 ESG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6개 대학 총학생회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주요 사업과 청년 정책을 공유해왔으며, △ 대학생 릴레이 헌혈 캠페인 △ 연탄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예수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들을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과 시설 견학을 했다.

김은주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장은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촉을 계기로 지

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들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세종시 중심 공약 취소해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예비후보
전주, 세종시 배후도시 공약 강력 비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우범기 예비후보의 ‘전주, 세종시 배후도시 공약’에 대해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전주 지우기 공약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약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범기 예비후보가 블로거를 통해 ‘전주, 세종시 배후도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며 “66만 전주시가 38만 세종시의 배후도시라는 것은 마치 주인공인 세종시를 위해 전주를 조연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배후도시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의 특성화 지역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위치해 주거·상업·문화·교육·의료 시설 따위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의미로, 우범기 후보의 공약은 전주의 위상을 낮추고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의 공약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이는 전주 아닌 세종시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전주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완주, 익산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 전주를 키우고 전주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인데 우범기 예비후보의 ‘전주, 세종시 배후도시 공약’은 전주 키우기를 바라는 전주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전주 지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같은 공약을 본 일부 시민들은 전주를 전혀 모르는 책상머리 공약이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범기 후보가 세종시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전주에서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주, 세종시 배후도시 공약’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세종시 중심 사고방식의 공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 송천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대여

온라인 콘텐츠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유튜브 제작 · 편집 강의 제공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이 지난 22일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창작공간 대여를 시작했다.

송천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에는 카메라, 편집 및 송출용 컴퓨터, 크로마키스크린, 음향믹서, TV 등 각종 방송장비가 구비됐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4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송천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내만의 영상 △저는 미래에 00이고 싶어 △나의 인생책을 소개합니다 △

시민 미니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유튜브 제작 및 편집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 창작공간을 사용하려면 누리집 ‘이용안내’ 목록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최라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간 대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송천도서관의 미디어 창작공간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자녀 가정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전주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제공하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6월 고지분부터 2자녀 가정에도 제공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자녀 가정 4만 3000여 세대가 월 645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3자녀 이상 9000여 세대가 월 1만 29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는 저출산 문제 타개를 위해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주지역 공공시설 입장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2자녀에게도 제공하는 내용의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이 최근 공포됐다.

시는 현재 2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주민센터를 통해 받고 있으며, 6월 고지분부터 감면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장병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한 현장 방문

금암도서관 · 금학천 정비대상지 ·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찾아 사업 추진성과 등 점검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2021회계연도의 꼼꼼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22일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병술 의원)들이 2021회계연도의 꼼꼼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22일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한 ‘전주시립 금암도서관’과 재해예방 및 수생태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금학천 정비대상지’, 드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찾아 사업의 추진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병술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꼼꼼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를 추진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해 전주시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가동

6개소 공공기관 15면에 구축

전주시 덕진구는 구청, 덕진보건소, 건지도서관, 동 주민센터(진북동,인후2동,송천1동) 6개소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5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 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윈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장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장애



구현으로 올바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전주시 출연기관 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전주시 출연기관 노동조합이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조지훈(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 전주시의회 의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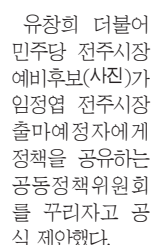
지난 2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전주시 출연기관 노조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를 이끌 적임자라며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의장을 거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역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대항머트 의무휴업 정책을 이끌어낸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주시에 산적한 노동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깊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후보라

며 조지훈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인재 유출 방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전주시 출연기관 노조는 전주시 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결사체다. 20여 년 동안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을 위한 숨은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유창희, 임정엽 후보에 공동정책위 제안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에게 정책을 공유하는 공동정책위원회를 꾸리라고 공식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을 수용해 시정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며 “이 가운데 행정 경험이 많은 임정엽 후보의 뛰어난 공약을 수용하는 것 외에 함께 공약을 발굴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원주군을 이끌어오

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등 수많은 정책을 발굴해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임 후보와 함께 우리 여건에 맞는 공약을 만들어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동정책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후보와 실무진이 함께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선거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선심성 공약을 만든다면 관란하지 않겠다”며 “각 후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탄한 공약을 만들어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